

2022.10.22.(토) 제 14회 목포문학상 시상식

『제14회 목포문학상』 당 선 작 발 표



『제14회 목포문학상』 당 선 작

부문	구 분	작 품 명	당 선 자	지 역	상 금
단편소설	본 상	큐브가 있는 풍경 ; 0.083	최수하	서울시	1천만원
	남도작가상	길목의 무늬	김성훈	해남군	5백만원
시(시조)	본 상	탕자	이창원	당진시	1천만원
	남도작가상	목포에는 이런 소리가	박행신	광양시	5백만원
희곡	본 상	미알	허진원	서울시	1천만원
비평	본 상	형식의 변주, 과정으로서의 감성-최은영론	신용성	강원도	1천만원
수필	남도작가상	그녀는 나의 주인공	주재현	무안군	3백만원
아동문학	남도작가상	그림 가족	이연숙	영광군	3백만원

□ 접수현황

- 분 야 : 단편소설, 시(시조), 희곡, 평론, 수필, 아동문학
- 접수기간 : 2022.8.1. ~ 8.30.
- 접수현황 : 701명

구 분	계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아동문학
계	701	407	223	36	9	12	14
본상	643	382	216	36	9	-	-
남도작가상	58	25	7	-	-	12	14

『제14회 목포문학상』 심 사 위 원

부문	성 명	약 력
단편 소설	권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한국평화문학 신인상 수상 • 장편소설 ‘파가니니의 푸른 일기’ 외 다수 저서 • 창작집 ‘키스하러 가자’ 외 다수 저서
	권정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 조선일보 신춘문예 데뷔 • ‘칼과 혀’ 외 다수 저서 • 혼불 문학상 외 다수 수상
	김종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8년 ‘문학동네’ 단편소설 데뷔 • ‘성공한 사람’, ‘조선통신사’ 외 다수 저서
	조형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 계간 ‘문학들’ 편집위원 • 2008 신춘문예 대중문화평론부문 당선 • 2009 계간 ‘문학동네’ 평론 발표, 등단 • 평론집 ‘신없는 세계의 비참’
	이화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 광주평화방송동서양고전인문 외래방송인 • ‘조지아 오키프 그리고 스티글리츠’ 외 다수 저서 • 제9회 목포문학상 본상 외 다수 수상
시 (시조)	나희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1989 중앙문예 ‘뿌리에게’ 등단 • 2022 제 19회 영랑시문학상 수상 외 다수 • ‘그곳이 멀지 않다’ 외 다수 저서
	박형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대학교 교수 • 1991 한국일보 신춘문예 ‘가구(家具)의 힘’ 등단 • 2020 제7회 풀꽃 문학상 대숲상 수상 외 다수 • ‘끝업이 투명해지는 언어’ 외 다수 저서

	이은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역임 • 현,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대전문화관 관장 • 국립한국문학관 이사 외 다수 • 한성기문학상(2005) 외 다수 수상
	정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회 한국시조작품상 심사위원 • 2019 제39회 가람시조문학상 • 2019 올해의 경기도시인상 • 2008 제22회 이영도 시조문학상 • ‘파도의 일과’ 외 다수 저서
희곡	김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부문 당선 • 제6회 차범석희곡상 수상 • 「김광택 공연대본선집」외 다수 저서
	김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사) 한국작가협회 이사장 • (사) 한국연극협회 이사 • (사) 한국극작가협회 고문 • 이데일리 심사위원
평론	송승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문학동네 신인상 시 당선 • 2005. 현대문학 신인추천 평론 당선 •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있기를’외 다수 시집 • ‘측위의 감각’ 외 다수 평론집
수필	강병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간「수필문학」발행인 • 한국수필문학가 협회 부회장 • 수필문학상 운영위원장 • 한국문인협회 「월간문학」편집위원
아동 문학	김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대상 수상 외 다수 • ‘쉬는 시간에 똥 싸기 실어’ 외 다수 시집 • ‘곰 고릴라가 온다’ 외 다수 동화책

『제14회 목포문학상』 심사평

□ 단편소설 / 본상

심사위원장 이화경

심사위원 권영임, 권정현, 김종광, 조형래

2022년 목포문학상 소설 부문에는 총 216편이 접수되었다. 그 중 10여 편에 관한 치열한 논의 끝에 「꽃 내음 사람 내음」, 「큐브가 있는 풍경; 0.083」, 「우드스탁 호텔」, 「침몰선」, 「펄(pearl)」 다섯 편을 본심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 중 한 편을 선정하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각자 염두에 둔 작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 따라서 장시간 토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심사위원들 간 그 어떤 양보나 타협 없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만큼 다섯 편의 작품이 가진 개성과 매력이 두드러졌다는 의미다. 온화한 분위기였지만 한 편의 소설을 수상작으로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스럽게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꽃 내음 사람 내음」은 청년 선생과 팔순 제자가 시골 음식점을 찾아 헤매는 짧은 시간 속에 이루어진 세대 간 소통과 유대를 다정한 시선으로 포착한 소설이었다. 그들이 결국 허탕을 친 후에조차 새로운 공감에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되는 결말이 인상적이었다. 정갈한 구성과 세련된 문장 또한 돋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이라는 익숙한 주제가 ‘지금 여기’의 어떤 새로운 문제의식을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드스탁 호텔」은 퇴락한 호텔이 환기하는 죽음충동의 무덤에 우연찮게 진입하게 되었으나 그저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주인공에 관한 형상화에 있어서 탁월했다. 『만세전』이나 「무진기행」의 모티프를 연상시키는 대목 또한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한 편의 부조리극을 연상시킬 정도로 작위적으로 느껴지는 대목과 2인칭 시점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호불호가 갈렸다.

「침몰선」은 생면부지의 누군가에 의해 지하철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던 주인공 우평이 폭우 속 표류하는 오리배를 외면하지 못하는 이야기이다. 우평도 오리배도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재난을 겪는 게 아니다. 이러한 도저한 동질성에 기초하여 인과를 설정할 수 없는 우연성의 불행을 어떻게든 납득해보려는 우평의 고군분투를 촘촘하게 묘파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다만 이러한 사고가 많은 이들과의 접점을 형성하는 사건으로서 설득력 있게 의미 부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쉬웠다.

「펄(pearl)」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이 어떻게 폭력에 노출되고 길들여지는지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수작이다. 외모에 대한 대상화를 비롯하여 일상의 폭력성에 말미암은 공포와 불안에 관한 긴장감 넘치는 묘사와 문체가 특히 탁월했다. 하지만 더 탁월한 선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다.

「큐브가 있는 풍경; 0.083」은 자신의 시취와 주검을 목도하면서도 스스로의 죽음을 헛것으로 치부하며 애써 부정하려는 유령에 관한 소설이다. 그 유령은 생전의 성패(成敗)에 관한 이력을 뫼비우스의 띠처럼 거슬러 순환하고 있는 데 고착되어 있다. 도리어 그가 유령임을 알아차리는 이는 헛것이 아닐 수 있음을 의심하기 시작한 산 자 즉 경비원이다. 삶과 죽음, 헛것과 실재, 환상과 현실의 경계에 관한 자명한 사실을 교란하면서도 정교하게 이야기를 구축한 솜씨가 새롭고도 놀라웠다. 스스로의 확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이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에 관한 문제의식 역시 도져했다.

일찍이 비평가 김현은, 문학은 아름답고 참된 것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원래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참된 것을 부정하려는 힘과의 부단한 싸움 속에 얻어진다고 썼다.

그 쉽지 않은 싸움을 기꺼이 감행하려는 다수 응모작들의 패기가 돋보였다. 이번 수상작은 그러한 패기 중 하나가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쓰기를 거듭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수상자에게 축하를 보낸다. 아울러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응모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단편소설 / 남도작가상

2022년 남도작가상 소설 부문에는 총 7편이 접수되었다. 목포라는 역사적 장소가 내포한 다양한 의미를 생동감 넘치는 언어로 형상화한 소설들이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길목의 무늬」도 그렇다. 다순구미에 정착하거나 흘러들어온 각양각색의 인생들에 대한 사실적 풍속도로서의 의미가 돋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시공간적 감각과 생활상 내지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을 다층적으로 형상화하는 탁월한 솜씨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산다미 색시 어미와 업둥이인 주인공을 아들로 삼은 아버지를 내세워 이야기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목포의 역사를 능숙하게 조직하고 있었다. 목포와 다순구미에 관한 익숙한 소재를 근대도시의 역사적 이력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로 읽도록 하는, 흔치 않은 미덕을 갖고 있는 소설이었다. 수상자에게 축하를 전한다.

□ 시(시조)/본상

심사위원장 이은봉

심사위원 나희덕, 박형준, 이은봉, 정수자

올해 목포문학상 심사위원은 아래의 네 사람이었다. 주어진 응모작품을 읽고 각자 우수한 시를 제출한 사람 다섯 명씩을 골라 목포문학관에 도착한 것은 2022년 9월 18일(일) 오후 3시 30분이었다. 자리에 앉아 입을 맞추어보니 결국 네 사람의 심사위원이 고른 20편의 시가 예심에 통과된 작품인 셈이었다.

이들 20편의 시를 읽고 각자 평가를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잠시 후 일단 4명의 시 4편을 당선작의 후보로 골라내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접수번호 203의 시 「수평선을 마주하다」, 접수번호 452의 시 「탕자」, 접수번호 474의 시 「잘 지내요, 당신!」, 접수번호 475의 시 「빈 공」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4편의 시는 어떤 시를 당선작으로 뽑아도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작품의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어떤 작품을 정작의 당선작으로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었다.

접수번호 203의 시는 수사가 화려하고 발상이 젊지만 공감의 밀도가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접수번호 474의 시는 스케일이 크고 역사의식이 돋보이지만 나머지 시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접수번호 475의 시는 충분히 서정적이고 심미적이지만 매조지가 약하고 나머지 시들의 형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452의 시는 기독교 설화인 ‘돌아온 탕자’의 원형심상에 기초해 있으면서도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겪는 절망과 희망이 현실감 있게 그려져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그것이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그려져 있다는 점이 실감을 주었다. 나머지 두 편의 시도 충분히 완성도가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루다고 평가되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당선작 한 편을 고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다수결이라는 절차를 거쳤는데,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접수번호 452의 시 「탕자」를 당선작으로 뽑자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시는 최근 우리 시단을 뒤덮고 있는 맹목적인 의식의 추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인 삶과 생활의 밀도 있는 형상을 통해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이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 당선작 「탕자」라고도 할 수 있다. 낙선자에게는 다음 기회를 약속하고, 당선자에게는 더욱 정진해 훌륭한 시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 시(시조)/남도작가상

목포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 인물, 해양 등 목포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탁월한 작품에 수여하는 남도작가상 시(시조) 부문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작품은 세 편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이 세 작품을 숙독하면서 남도작가상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목포에 관한 정서를 새롭게 형상화해 낸 시를 수상작으로 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항구에 타오른 낭만의 숨결」은 목포의 항구를 정서적으로 승화해낸 가락이 특징이었다. 시적 이미지와 시조의 가락이 어우러져 목포의 풍취를 드러냈으나 그것이 표면적 묘사에 그쳐 시인만의 독특한 개성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보리마당 4구에 내리는 눈」은 ‘눈’과 ‘불’을 교직하여 목포의 ‘보리마당’이 지닌 의미와 정서를 시인의 내밀한 시선으로 재해석해 낸 점이 우수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정서와 보리마당이라는 장소성 사이의 연결고리가 다소 느슨하여 구조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남도작가상 시(시조) 부문 당선작으로 결정된 「목포에는 이런 소리가」는 목포를 형상화해낸 극적 구성이 활달하고 신선하였다. 시의 군데군데 나타난 “순수하디 순수한 지상의 과제”라든지 “환희의 웃음꽃” 같은 상투적인 표현이 흠이었지만, 산문적 형식을 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의 전방위적 모습을 ‘소리’로 집중력있게 표현하고자 한 참신한 접근법이 이 시에 활달한 리듬과 생기를 부여한다. 또한 목포의 소리와 더불어 목포 사람들의 친근한 정서가 어우러진 대사는 목포라는 장소와 사람 사이의 유대감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목포의 다양한 모습을 경쾌하게 보여준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남도작가상 시(시조) 부문에 투고된 작품들을 통하여 목포의 풍물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어우러진 목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시를 통하여 목포의 정서를 유감없이 느끼게 해준 모든 투고자 분들께 격려를 보내며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비평은 특정 이론 개념의 적용을 통해 작품을 분석하고 이론의 적합성을 논증하는 글쓰기가 아니다. 비평은 무엇보다 작품과 마주서서 작품 자체의 의미와 동시대성의 맥락을 읽어내고 작품의 내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직조하는 비평가의 사유와 사투가 벌어지는 글쓰기의 현장이다. 더 나아가서 비평은 작품을 해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만의 문체(Style)와 문채(Figure)로 고유한 미적 양식의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비평가 고유의 문체와 문채 없는 비평은 투박한 문장과 이론 개념의 기계적 적용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비평가의 사유 안에서 이론의 방법론이 녹아 스미지 못하고 자신의 고유한 사유를 고안하려는 비평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응모작들은 작품의 심연과 행간을 교차하면서 작품 자체를 깊이 읽어내는 비평의 심미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듯 싶다.

그런 점에서 이번 목포문학상 문학평론 부문에 응모한 「형식의 변주, 과정으로서의 감성—최은영론」은 다른 응모작과 달리 앞서 언급한 비평이 지녀야 할 모든 지점에 도달한 수려한 작품이었다. 비평가 자신의 고유한 문체와 문채가 명료하고 비평적 사유가 오롯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소설의 양식과 서사의 과정, 그 감성에 대한 탐구 속에서 최은영 소설의 고유한 미학을 분석하되 비평가의 사유를 자신만의 비평 미학으로 녹여내서 빛난 비평이었다. 문학 공동체 안에서 비평적 사유와 미적 깊이의 긴장이 지속되길 응원한다. 당선을 축하한다.

<미얄>을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이견이 없었다. 물론 이 작품에도 몇 가지 의문은 있다. 봉산탈춤의 미얄은 영감(남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뻘뻘 미얄의 엉덩이춤은 해학, 깊은 동정심을 유발하고 끝내 서러움을 남긴다. 그 연민을 품은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녹아나 있는가. 죽음은 느닷없는가. 죽음은 가벼운가. 현실은 그럴지 몰라도 예술작품 속의 인간과 그 생사의 질문은 가볍지 않다. 잘 갖춰 입은 수의와 거친 상복의 차이처럼, 묵직한 울림은 고난의 과정과 그것을 수용해 나가는 디테일 속에 있다. 그다지 슬프지 않은 '명심'의 느닷없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상황의 이모저모가 '미얄'에 겹쳐 보이는지. 몇 가지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내놓는 이유는, 여타의 응모작에 비하여, 희곡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인물과 사건의 상호작용을 뛰어난 시적 언어로 구술해 놓은 점이 눈에 띈다. 동시에 개성 있는 인물들 간의 갈등이 코믹하면서도 매력적으로 전개된다. 공간과 행위라는 측면에서도 이 작가의 연극성은 남다르다. 긴장과 이완의 거리감과 무대 환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극을 끌고 가는 힘이 좋다. 호기심을 유발하고 집중하게 만드는 작가의 역량이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이 징글징글한 가족에 대한 질문이, 시대의 특유한 성질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 시대에도 이런 가족이 있었다고 '미얄' 충분히 소통하고 스며들어 애뜻한 삶의 결을 드러낸다. 인물마다 스스로 무르익어 어느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냄새를 풍긴다. 좋은 작품이다.

또 좋은 작품이 여럿 있었다. 최종적으로 당선작을 포함한 여섯 작품이 논의 되었다. 특히 <목포 두꺼비>는 고향과 '집'이라는 소재를 놓고 공감할 수 있는 말과 음미할만한 글로 갈등을 엮어나가는 솜씨가 좋다. <민어던(民魚傳)> 역시 정제된 대사의 수준이 높고 우의적인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매력적이다. 그 외 상황과 인물이 다분히 연극적인 <불면의 밤>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이 가듯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중량감 있는 주제를 담아낸 작품들 <사형수는 울었다> <왜 나홀로 다른 곳에 서있는가> 등이 있었지만.

공연을 전제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인물과 공간의 상호작용이 취약하고 무대가 주는 환영이 단편적이라 밋밋하다. 무엇보다 주제를 담은 정서의 깊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고찰, 인물의 매력, 시대성, 구성의 치밀함, 시의 본성을 갖춘 대사와 문장... 묶어서, 희곡문학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선작에 밀렸다.

목포는 예향의 도시이고 많은 문인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한국 수필문학의 뿌리가 되는 김진섭 작가가 목포에서 태어났으며, 그밖에도 차범석, 김우진 등 유명 작가가 근대 문학의 바탕이 되었다. 수필은 체험의 문학이다. 자기체험의 진솔한 고백이 그 요체이며 이는 바로 다른 문학과 구별되는 수필의 특징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수필의 소재가 되는 체험은 누구나 쉬이 겪는 일반적이 체험이 아닌 진귀하고 값진 체험이라야 하며 그 값진 체험을 보다 진지하고 매력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수필의 진가는 발휘된다.

작자는 목포역에서 ‘옥단이길’이란 문학기행 탐방로 안내판을 마주하고 옥단이의 숨결을 느끼며 대화를 나누는 문체가 인상적이다. 일반적으로 기행수필을 보면 흔히들 인터넷이나 안내판을 뒤적이면 알 수 있는 정보들로 글을 쓰는 실수를 범하기 쉬우나, 작자는 적당한 지식정보에 서정을 가함으로써 거부감 없이 읽혀 나가는 문장이 간결하고 자신의 관조를 통해 그 주제를 재미있게 형상화하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또한 얘기를 전개함에 있어 간결성은 수필의 생명이다. 필자의 글에는 매끄럽고 유려하게 잘 나가는 문장들이 돋보인다. 기행수필에서는 체험의 일상을 이것저것 표현하다보면 그 주제가 흐트러지기 쉬우나 작자는 목포 출신 극작가 차범석의 작품 「옥단어!」의 주인공 ‘옥단이’와 함께한 주제의 발상과 문학기행 탐방길 산책은 예향의 도시 목포의 정서를 알리는 수준 높은 기행수필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 아동문학 / 남도작가상

심사위원 김개미

남도작가상 아동문학 부문에는 동시 9명 동화 5명 총 14명이 응모하였다. 남도문화와 가족이 주요 소재였으며,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섬세한 문장으로 그려낸 작품들이었다. 절제된 언어로 목포의 명물 삼학도와 가족을 형상화한 동시 「우리 집 삼학도」와 미완의 동양화 속 동식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동화 「그림 가족」은 주목할 만한 작품이었다. 특히 「그림 가족」의 발톱 없는 호랑이, 잎이 마르는 소나무, 빨간 머리 두루미, 출썩대는 까치 등 그림 속 동식물들은 완벽하지 않아 매력적이었다. 발톱이 없는 허술한 호랑이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호랑이를 배반하는 호랑이라서 통쾌함이 느껴졌다. 어느 공동체든 구성원 모두가 완벽한 곳은 없다. 완벽한 구성원으로만 구성된다면 공동체에 개성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개성이란 완벽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며, 그것은 수용 혹은 이해되어야 한다. 「그림 가족」은 공동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제시하였다. 「그림 가족」의 남도작가상 아동문학 부문 당선을 축하드린다.